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복지 데스크

## 강진군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기관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역사프로그램 응모해

전국 군 단위 중 유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수상

강진군 도서관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은 2008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 운영사례를 공모하여 지난 15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강진군 도서관은 지역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역사프로그램을 응모해 장려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받았다. 군 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맛있는 역사(食史)라는 주제로 관내 청각 언

어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강진군수 어룡역센터와 함께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맛있는 역사(食史) 프로그램에서는 역사논술 강사와 수어 통역사 그리고 만들기 강사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적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만들기 교육 등을 펼쳐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리 역사 바르게 알기와 문화해설사가 함께하는 우리 고장 문화기행, 일반인들에게 농아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수어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실(손으로



말해요)을 후속 프로그램으로 실시해 이번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 시상은 오는 11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장에서 진행된다.

김문환 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에서

전국 군 단위 도서관 중 유일하게 강진군이 선정돼 의미가 더하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애인 7명 전주맞춤훈련센터

입학...수료후 전북대병원 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센터장 이성화·이하 훈련센터)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과 함께 ‘맞춤훈련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증진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맞춤 훈련 입학식에는 지적장애인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사무보조 및 진료보조 등의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또 현장실무와 직장예절, 사회성 훈련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훈련생들은 전북대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앞선 8월, 훈련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 설계에도 적극 참여했다.

뉴스1

###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영암군, 노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영암군은 노인복지분야 종사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종사자 상호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종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는 관내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윤리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실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교육과 종사자

사례발표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한마음대회(체육대회)를 통해 종사자 심신단련은 물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한 모범 종사자들에게 군수표창을 수여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대전면, ‘100세 시대, 만수무강!’ 건강교실

내달 15일까지, 31개 경로당 돌며 만성질환 관리·예방교육



보건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설명과 예방관리, 건강체조로 이뤄졌으며, 특히 건강체조는 스트레칭과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이뤄져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참여자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해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 대전면이 지난 11월부터 11월 15일까지 ‘100세 시대, 만수무강!’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00세 시대 만수무강 건강교실은 사회복지사 2명과 간호사 1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찾아가는 방문보건복지서비스팀’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교육,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료, 복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인권위, 오늘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지역 복지 서비스 현황을 평가한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을 분석할 예정이다.

탈시설 당사자인 이북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자신이 자립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권위는 9월 25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장애인 탈시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1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